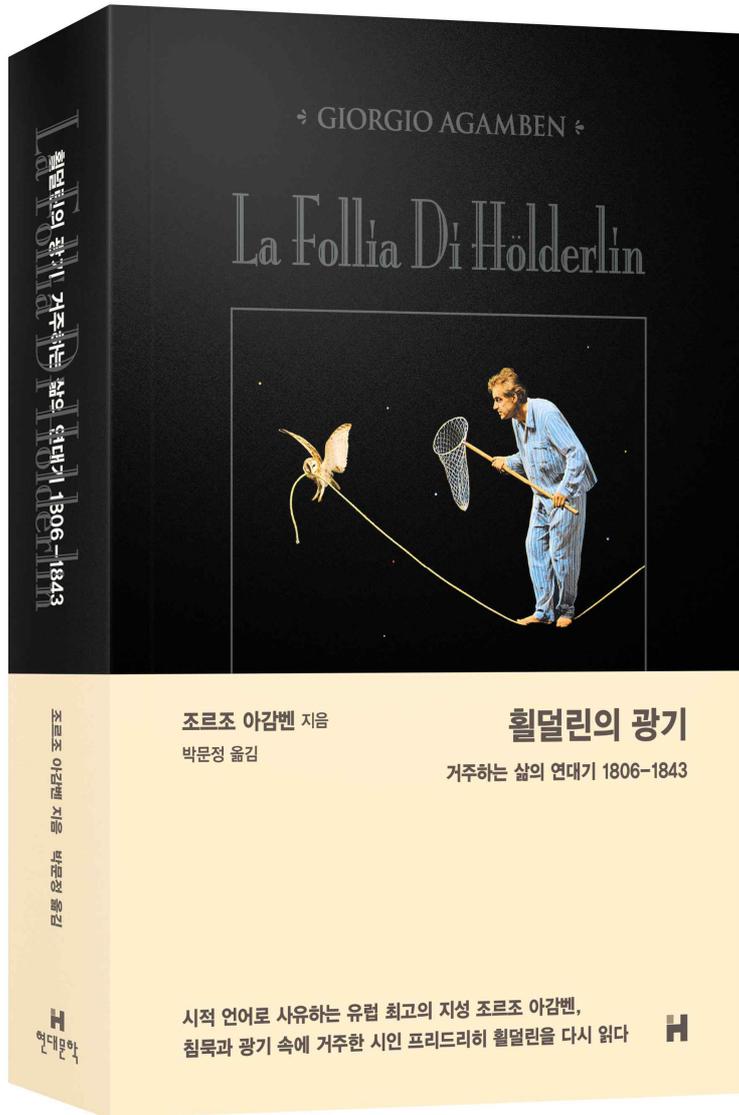


휠덜린의 광기

거주하는 삶의 연대기 1806~1843

조르조 아감벤 지음, 박문정 옮김



La follia di Hölderlin(2021) | 인문교양/철학일반/미학·예술철학/문학론·작가론 | 128x188mm | 368면 | 22,000원 | ISBN 979-11-6790-313-6 (03800) | 2025년 7월 20일 | (주)현대문학 발행
06532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21(잠원동, 미래엔) TEL 02) 2017-0295
담당 : 현대문학 단행본팀 강연옥 팀장

□ 책 소개

시적 언어로 사유하는 유럽 최고의 지성 조르조 아감벤,
침묵과 광기 속에 거주한 시인 프리드리히 뢰델린을 잇다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인간다움, 그 복원에 관한 매혹적인 사유

“40세가 되던 해에 뢰델린은 인간으로서 이성을 잃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러니까 재치 있다고 생각했다.” -로베르트 발저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우리 시대 가장 도전적인 사상가 조르조 아감벤의 『뢰델린의 광기—거주하는 삶의 연대기 1806~1843』이 현대문학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시인들의 시인’이자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호출한 작가인 프리드리히 뢰델린의 삶과 문학을 통해 그의 침묵과 광기를 철학적으로 재조명한 작품이다. 문학, 철학, 신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를 가로지르며 참여한 언어로 독창적인 사유를 펼쳐온 조르조 아감벤은 유럽 문학사상 가장 비극적인 시인을 호출함으로써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현대성이 끝내 외면한 근본 질문을 급진적으로 소환한다.

‘뢰델린’ 하면 반생을 정신착란 가운데 외롭고 불우하게 살아야 했지만 셸링, 헤겔과 함께 독일 이상주의 철학에 기초를 놓고 헤세와 릴케, 파울 첼란 등 독일의 내로라하는 후대 문학가뿐 아니라 니체와 하이데거, 벤야민, 블랑쇼 등 사상가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준 천재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삶은 36세까지 세상과 소통하며 살았던 전반기, 그리고 이후 36년간 정신착란에 빠져 외부 세계와 단절한 채 튀빙엔의 한 목수 집에 은둔하며 살았던 후반기로 나뉘는데, 아감벤은 소위 ‘광기의 시기’로 정의되어온 1806년 이후의 삶과 작품을 조심스레 더듬으며, 철저히 문학적인 동시에 존재론적 독해를 시도한다. 이를 통해 뢰델린의 광기를 단순히 병리적 차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인간 존재의 근원적 방식, 즉 ‘거주하는 삶(das wohnende Leben)’이라는 시적, 철학적 가능성을 포착한다. 그럼으로써 그가 병들고 무너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이 지상에 시적으로 거주한다”는 자신의 문학적 명제를 온 삶으로 증명해낸 시인이었음을 밝힌다.

『뢰델린의 광기』는 단지 한 시인의 삶에 대한 분석을 넘어 철학과 문학이 공유하는 존재론적 질문의 자리를 복원하려는 시도이자, 여전히 “궁핍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미학적 고찰이다. 따라서 이 책은 문학과 예술이 단순한 표현의 도구를 넘어 단절된 삶의 균열을 어떻게 봉합하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성찰해볼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아감벤에게 뢰델린의 삶은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그는 근대성의 여명기에 ‘광인’으로 취급되었던 시인 뢰델린의 연대기 복원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 물음에 답한다. 이 작업들에서 아감벤은 성공적으로 작동한다고 간주되었던 근대성의 시스템, 즉 ‘인류학적 기계’의 심각한 오작동을 지적하고, 인간이 세계에 ‘거주’하는 대신 그것을 ‘점령’해왔다고 비판한다. 그가 인간다움의 가능성을 회복할 대안적

영역으로 지시하는 곳은 다름 아닌 문학과 예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성에 의해 내쳐진 율덜린은 단순한 문학적 인물을 넘어, 근대성 자체를 재고하게 만드는 ‘실패의 패러다임’이자 ‘시스템의 균열’로서 아감벤의 사유 안에서 결정적인 위상을 점하게 된다. - 『오펜의 글에서』

“시는 철학이 되어야 하고, 철학은 시가 되어야 한다”

가장 깊고 아픈 방식으로 아감벤에 응답한 시인 율덜린

“시는 철학이 되어야 하고, 철학은 시가 되어야 한다.” 이는 아감벤의 사유를 관통하는 핵심 명제로, 그는 이번 『율덜린의 광기』에서 시와 철학의 오래된 동행을 새로운 방식으로 선보인다. 율덜린은 아감벤의 오랜 철학적 기조에 가장 깊고 아픈 방식으로 응답한 시인이며, 율덜린의 생애와 문학은 그가 평생 다뤘은 문제들에 가장 깊이, 가장 조용하게 응답하는 일종의 ‘철학적 실천의 장’이다.

이 책에서 아감벤은 율덜린의 시를 단순히 언어의 형식으로 보지 않고, 존재론적 진리를 탐사하는 하나의 ‘철학적 사건’으로 읽는다. 이를 통해 율덜린은 ‘광인’이 아니라 언어를 극한으로까지 몰아붙이면서 오히려 철학보다 더 철학적인 ‘시적 언어의 가능성’을 열어 보인 인물로 다시 태어난다.

철학은 무엇보다 한 개인이 개인들 사이에서 느끼는 소외다. 즉 철학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여전히 이방인인 채로, 여전히 부재하는 조국에게 집요하게 말을 거는 존재 방식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철학적 조건의 역설을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조국에게 너무나 낮은 존재가 되어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 선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자기를 추방한 바로 그 조국에 여전히 구속되어 있음을 천명한다. 근래의 문턱에 이르러 시인들조차도 더 이상 조국에게 말을 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시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들을 수 없고 들으려 하지 않는 조국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모순이 폭발하는 지점에 바로 율덜린이 있다. 이 순간, 시인 율덜린은 철학자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철학이라는 병원’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시인은 자신의 조국이 그를 정신병자로 진단한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글쓰기를 멈추지 않고, 어두운 밤 속에서 ‘독일의 노래’를 끈질기게 찾아 헤맸다. (48~49쪽)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삶을 형상으로 드러낸다는 것

『율덜린의 광기』는 구성면에서도 특이한 면모를 보인다. 아감벤은 철학적 분석이나 문학기론적 해석보다 먼저 율덜린의 생애를 시기별로 구성한 일종의 연대기적 서술을 채택한다. 여기에 시인과 의 대화와 편지, 기록, 문헌, 진단서, 주변 인물의 증언들을 통해 율덜린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나열하는데, 이러한 구성적 선택은 한 인간의 삶은 결코 분석이나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형상’으로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율덜린은 말년의 삶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로부터 모든 역사적 흔적을 제거하기로 결단한 인물이었다. 전기 작가들의 가장 오래된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일관되게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Es geschieht mir nichts”라고 말하곤 했다. 이 단언은 자기 삶의 사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

을 더 이상 사건의 연속으로 환원할 수 없는 어떤 ‘형상’으로 전환하는 시적 선언이다.

훔덜린이 탐에서 보낸 삶은 이 형상적 진실에 대한 끊임없는 검증이다..... 형상 안에서의 삶은 순수하게 인식 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자체로 삶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책에서 시도하려는 바처럼, 삶을 형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삶을 삶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고 그의 삶을 훼손되지 않은 인식 가능성 자체로 지켜내는 것을 의미한다. (17~18쪽)

따라서 아감벤에게 있어 연대기란 단순한 사실의 배열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상성의 리듬을 따라 가는 윤리적, 철학적 실천에 다름 아니다. 광기 이후의 훔덜린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 삶의 진실을 흐릴 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의 삶이 ‘무엇을 견디고 있었는가’다. 탐 안에서의 고요한 일상, 기이한 응답, 그리고 시의 잔광들은 인식될 수는 있지만 해석될 수 없는 ‘형상 안에서의 삶’을 방증한다.

“인간은 이 지상에 시적으로 거주한다” 거주 불가능한 시대를 위한 거주의 철학

아감벤은 “인간은 이 지상에 시적으로 거주한다”라는 훔덜린의 시구에서 존재론의 핵심 명제를 발견한 하이데거를 깊이 있게 계승한다. 하이데거는 훔덜린의 시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사유했으며, 시야말로 인간이 세상과 진정으로 관계 맺는 방식이라 보았다. 즉 “시란 존재를 언어 속에서 근원적으로 보존하는 행위”이며, “시적 거주란 인간이 존재에 응답하는 가장 본질적인 거주의 형식”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아감벤은 하이데거가 종국에는 신학적 구조 안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삶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실천의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와 거리를 둔다.

훔덜린은 신들의 부재를 비극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곧 그의 시대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사유하고 경험한다. 블랑쇼에서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후기 훔덜린의 무신론에 주목한 이들은 훔덜린의 대표 시 「빵과 포도주」의 한 구절을 종종 인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잦은 인용에도 그들은 훔덜린이 보여주는 (어쩌면 니체조차 도달하지 못한) 일종의 신학적 허무주의를 간과했던 듯하다. 이때 신의 죽음이나 부재는 결코 비극적인 상황도 아니며, 후기 하이데거처럼 또 다른 신적 형상의 도래를 기다리는 어떤 상태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훔덜린은 “고대의 탄탈로스처럼”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볼 수 있는 심오하면서도 역설적인 통찰력으로 신들과의 이별을 목가 또는 희극이라는 시적, 실존적 형식 속에 위치시킨다. (79쪽)

아감벤에게 ‘거주한다는 것’은 단지 공간에 머무는 물리적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언어 속에, 침묵 속에, 무너진 세계 속에서조차 자신을 일상적으로 지속하는 존재의 형식이다. 흥미롭게도 아감벤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어 문법에서 기원한 중간태 개념(주체가 행위자인 동시에 대상이 되는, 능동도 수동도 아닌 상태. 가령 ‘기뻐하다, 부끄러워하다, 미치다와 같은 동사’)을 끌어오기도 한다.

아감벤은 시인 훔덜린의 삶이야말로 이러한 ‘중간태적 삶’의 전형이라고 보았다. 훔덜린은 강한 의지를

통해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능동태적 영웅도, 시대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된 수동태적 피해자만도 아니었다. 그의 삶은 의지적 결단 이전에 존재하는 순수한 성향과 훔덜린만의 고유한 습관에 따라, 그 자신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진’ 삶에 가까웠다. (348쪽)

훔덜린은 정신적 침묵의 시기에조차 시적詩作을 완전히 멈추지 않았으며, 이 시기의 언어는 과편적이고 균열되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철학과 시, 광기와 사유의 경계가 무너진 새로운 언어 실험이 전개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훔덜린은 단지 거주를 상실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거주의 가능성을 열어젖힌 인물로 해석된다. 그는 언어가 무너지는 곳에서 새로운 언어의 형식을 탐색했고, 철학이 도달하지 못한 경계에서 삶을 지속하는 방식을 실험했다. 아감벤은 이러한 훔덜린의 실존과 시를 통해 현대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계 속에 어떻게 거주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의 가장 오래된 질문을 던진다. 따라서 이 책은 하나의 전기나 비평서이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쓰는 시, 다시 생각하는 철학, 다시 살아보는 삶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려는 훔덜린의 열망이 깃든 하나의 안내서이다.

훔덜린에게 거주하는 삶은 “인간은 이 지상에서 시적으로 거주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시적dichterisch인 삶’이다. 독일어 동사 ‘dichten(시를 짓다)’은 어원적으로 라틴어 ‘dichtare(받아쓰게 하다, 구술하다)’에서 유래하는데, 고전 작가들이 종종 필경사에게 자신의 작품을 구술하기 시작하며 점차 ‘시를 짓다’ ‘문학 작품을 창작하다’라는 의미로 자리 잡았다. 시적인 삶, 즉 시적으로 거주하는 삶이란 하나의 ‘구술된 삶’, 곧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지는 삶이다. 이는 하나의 습관, 하나의 주어짐에 따른 삶으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없고, 다만 거주할 수 있을 뿐이다. (343쪽)



53세의 훔덜린.
슈라이어너와 로바우어의 연필 스케치(1823년)

□ 프리드리히 뢰델린에 대하여

궁핍한 시대에 시인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그러나 시인들은 성스러운 밤에 이 나라 저 나라로 나아가는

바쿠스의 성스러운 사제 같다고 그대는 말한다

_뢰델린 「빵과 포도주」에서

프리드리히 뢰델린(1770~1843)은 불행한 시인의 전형이다. 시와 문학에 삶의 전부를 바쳤으나 생전에 빛을 보지 못하고 정신착란 속에 긴 유희의 삶을 살다 세상을 등진 사람이다. 20세기에 들어서야 이 불행한 시인의 문학세계가 재발견되었고 그는 독일 현대시의 선구자이자 독일 민족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떠올랐다. 뢰델린의 문학은 헤르만 헤세, 라이너 마리아 릴케, 파울 첼란 등 독일의 내로라하는 후대 문학가뿐 아니라 하이데거와 니체, 벤야민, 블랑쇼 등 사상가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다.

뢰델린은 1770년 독일 남부의 라우펜에서 수도원 관리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리고 두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네 살 때 어머니의 재가로 의붓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하지만 그 아버지마저 아홉 살 때 세상을 떠났다. 목사의 딸이었던 어머니는 아들이 성직자가 되기를 바랐다. 18살 뢰델린은 어머니의 뜻을 따라 튀빙겐 신학교에 입학했다. 이 학교에서 장차 독일 관념철학의 거두가 될 헤겔, 셸링과 우정을 쌓았다. 이 시기 경험한 프랑스혁명과 칸트의 비판철학, 그리스 문학과 철학의 수용이 뢰델린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그는 대학 시절 시문학에 인생을 걸기로 마음먹고 목사의 길을 포기했다. 이후 뢰델린 일생은 시인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정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생활인으로서 필요한 생계 방편의 확보 사이 모순과 충돌로 점철됐다. 1795년 12월에 프랑크푸르트로 건너가 공타르 가문의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여주인인 주제테 공타르와 사랑에 빠졌고 이 무렵 빌헬름 하인제, 괴테와도 교유한다. 1802년 주제테가 서른셋의 나이로 이른 죽음을 맞이하자 그때부터 정신착란 징후를 보였으며 1806년 어머니에 의해 튀빙겐 아우텐리트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된다. 이듬해 목수인 에른스트 치머의 자청으로 네카 강변에 있는 치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1843년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치머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시를 쓰며 여생을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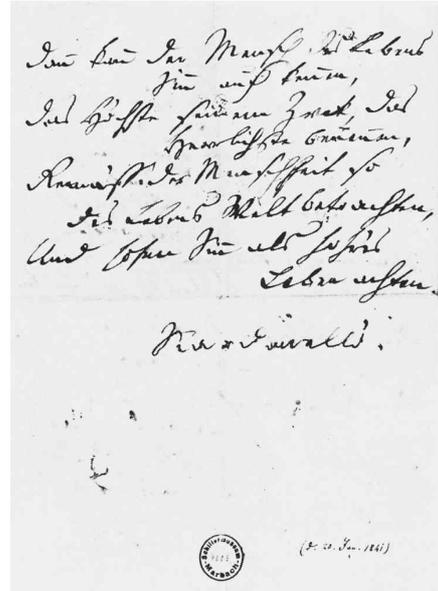
그의 시 작품은 독일 문학에서 정점을 이룬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당대에는 시인으로서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괴테와 실러 같은 거장의 그늘 아래서 작품 발표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탓도 있지만, 뢰델린의 시가 '표상세계의 변화'를 시도했던 만큼 전래의 주제에 머물지 않고 당대의 이해지평을 넘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에야 젊은 고전문학도이자 독문학도인 노베르트 폰 헬링라트에 의해 발굴되고 재평가된 그의 후기 시문학이 뢰델린을 현대시의 선구자로 세워놓았다. 고전 그리스 문학 번역가로서, 지상에서의 소명을 노래한 시인으로서 그리고 정신병의 그늘에서 고통받은 한 인간으로서 극한을 추구하는 정신에서 이루어낸 그의 문학은 가장 현대적이며 가장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더 높은 삶」

인간은 자신의 삶을, 결심을 선택하고
오류로부터 자유로운 그는 지혜와 생각을 알고
세상에 가라앉은 기억을 떠올린다.
그 어떤 것도 그의 내면의 가치를 망칠 수 없다.

찬란한 자연이 그의 하루를 아름답게 하고
그의 내면의 정신은 그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고
마음 한가운데서 때때로 진실을
그리고 더 높은 감각과 수많은 귀한 질문을 존중하게 한다.

그러면 인간은 삶의 의미를, 자신의 목적을
가장 고귀한 것, 가장 훌륭한 것이라 부를 수 있게 되며
인간다움에 따라 삶의 세계를 바라보고
더 높은 삶으로서 높은 의미를 존중하게 된다.



「더 높은 삶」의 육필원고

□ 추천의 글

“훔덜린의 후기 삶은 아감벤에게 철학적 사유의 진정한 ‘사건’이다. 침묵과 무위 속에 머무르며 시인이 증명해보인 삶의 가능성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을 건넨다.” - 『모나츠헤프테(Monatshefte)』

“이 책은 아감벤 사상의 정수다. 시와 철학, 광기와 정치가 교차하는 자리에서 빛어낸 가장 아름답고 깊은 사유의 결실. 창의적이며 심오하다.” - 『초이스Choice』

“훔덜린은 궁핍한 시대에 앞서 간 시인이다. 이 시대의 그 어떤 시인도 그를 추월할 수 없다. 선구적인 이 시인은 미래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서 도착하기도 한다. 그의 말이 도래할 때, 미래는 비로소 이곳에 입재한다.” - 마르틴 하이데거

“신화와 영적인 삶 사이의 관계를 다룬 후대 시들의 원형이 있다면, 그것은 훔덜린의 작품이다.”
- 발터 벤아민

“40세가 되던 해에 훔덜린은 인간으로서 이성을 잃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러니까 재치 있다고 생각했다.” - 로베르트 빌저

“훔덜린의 삶은 인류의 위대함과 처참한 신비다. 이 고귀한 영혼은 추락해야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높이 날 수 없었을 것이다.” - 빌헬름 바이블링거

□ 목차

들어가는 글

프롤로그

연대기 1806~1843

에필로그

옮긴이의 글

주 / 참고 문헌 / 인물 설명 / 도판 출처

□ 지은이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미학자, 비평가. 1942년 로마에서 태어났다. 시몬 베유의 정치철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파리의 국제철학원, 이탈리아 베로나대학교 등을 거쳐 베네치아 건축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1995년 푸코의 생철학과 슈미트의 비상사태를 토대로 로마 시대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를 현대 정치에 비추어 쓴 『호모 사케르』를 발표하면서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사상가 반열에 올랐다. 벤야민과 하이데거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푸코, 비트겐슈타인, 데리다, 블랑쇼, 들뢰즈, 바디우 등의 현대 사상가들과 플라톤, 스피노자, 유대-기독교 경전의 이론가와 학자들을 아우르는 사유 탐험을 지속해왔다. 2015년에는 20여 년에 걸쳐 집필한 9부작 『호모 사케르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그의 저서는 전 세계에 번역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피노키오로 철학하기』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 『저항할 권리』 『얼굴 없는 인간』 『내용 없는 인간』 『불과 글』 『말할 수 없는 소녀』 『왕국과 영광』 『행간』 『도래하는 공동체』 『세속화 예찬』 『목적 없는 수단』 『예외상태』 등 다수의 도서가 번역 소개되었다.

□ 옮긴이 박문정

이탈리아 작가와 문학을 중심으로 근현대 유럽 사회의 문화와 정치를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 한국외대 이탈리아어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안토니오 타부키와 지식인의 역할에 관한 논문으로 이탈리아 피렌체대학교, 프랑스 소르본 4대학, 독일 본대학 등 3개 대학 공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인문학술사회연구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아감벤의 팬데믹에 대한 인문적 사유를 담은 에세이 모음집 『얼굴 없는 인간』과 『저항할 권리』, 『피노키오로 철학하기』를 우리말로 옮겼다.

□ 책 속에서

한 인간의 삶에 담긴 진실은 언어로 온전히 정의될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 감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방법론적 원칙이다. 삶의 진실은 오히려 전기傳記에서 담론적으로 표현 가능한 수많은 사건과 사실이 수렴하는 무한한 소실점처럼 나타난다. 존재의 진실은 비록 명확하게 형상화될 수 없지만, 존재를 하나의 ‘형상’으로, 즉 실재하지만 숨겨진 의미를 암시하는 것으로 구성함으로써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을 하나의 형상으로 인식하는 지점에서만 그 삶을 구성하는 모든 사건이 우연적인 그럴 듯함 속에 자리를 잡는다. 즉, 삶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삶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모든 환상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다…… 윙델린이 탐에서 보낸 삶은 이 형상적 진실에 대한 끊임없는 검증이다. 그의 삶은 방문객들이 세세히 기술하려 한 일련의 크고 작은 사건과 습관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윙델린이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라고 말한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형상 안에서의 삶은 순수하게 인식 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자체로 삶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책에서 시도하려는 바처럼, 삶을 형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삶을 삶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고 그의 삶을 훼손되지 않은 인식 가능성 자체로 지켜내는 것을 의미한다. -17~18쪽

1802년 5월 중순, 윙델린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어떤 연유로 보르도의 마이어 영사 가문의 가정교사직을 3개월 만에 그만두고 서둘러 독일로 돌아온다. 여권을 신청한 후 걸어서 앙굴렘, 파리, 스트라스부르를 거쳐 독일로 향했다. 스트라스부르 경찰국이 윙델린에게 통행증을 발급해준 것은 6월 7일이다.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시체처럼 창백하고 쇠약하며 움푹 파인 눈에 눈빛은 거칠고 길게 자란 수염과 머리에 거지 같은 옷차림을 한 남자”가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프리드리히 마티손 집 앞에 나타나 “동굴에서 날 법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윙델린.” -23쪽

셀링에 따르면 윙델린은 ‘완전한 정신적 부재 상태’였지만 그리스어 번역은 가능한 상태였는데, 이는 마치 소포클레스 번역 작업이 대단한 지적 능력을 요하지 않는 일처럼 들리게 한다. 또한 윙델린의 말투에서는 광기를 느끼지 못했다는 진술까지 감안한다면 셀링은 윙델린의 광기를 오직 외형에서만 찾은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든다. 만약에 그렇다면 윙델린은 미치지 않은 것이다. -35쪽

문제는 윙델린이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가 아니다. 그가 스스로를 미쳤다고 믿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아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가 미치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했거나, 오히려 어느 순간 광기가 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비겁하게 회피할 수 없는 필연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윙델린은 광기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베르토가 지적했듯이 윙델린의 광기는 현대의 우리가 이해하는 정신질환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이 광기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거나 혹은 거주해야 하는 어떤 장소 같은 것이다. -39쪽

희극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가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 즉 일상적인 삶이 ‘무한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탈바꿈하며, 비록 그것이 삶의 맥락에서 고립되어 있더라도 자연적 진리로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윙델린이 옥탑에서 보낸 36년 동안 삶과 시를 통해 끈질기게, 모범적으로, 그리고 희극적으로 추구했던 바가 아닐까? 그리고 그가 말한 ‘일상적인 삶’이란 마지막 목가시에서 멀리 사라져가는 것으로 묘사된 ‘거주하는 삶’, 즉 습관과 규범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을까? -81~82쪽

9월 15일 윙델린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존경하는 어머니!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매우 기뻐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머니의 훌륭한 말씀은 제게 큰 힘이 되었

습니다. 보여주시 깊은 배려에 어머니를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어머니의 자비로운 마음과 유익한 충고는 언제나 저를 기쁘게 하고 큰 도움이 됩니다. 동봉해주신 옷도 아주 잘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만 줄여야겠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제가 더욱 성숙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훔덜린이라고 불릴 영광을 가진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올림

이 편지에서 보이는 과장된 격식은 훔덜린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의도적으로, 거의 풍자적인 방식으로 상대와 거리를 두려는 태도는 아들이 목사가 되길 바라며 훔덜린의 예술적 열망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와의 서신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148~149쪽

7월 8일 구스타프 슈바프의 일기 중에서

셰익스피어와 그의 매형 아르님을 제외한 모든 시인을 깎아내렸다. 괴테는 너무 고전적이고 인위적이라 했고, 울란트에게도 역시 같은 평가를 내렸지만, 약간의 재능은 인정했다. 티크는 걸으로는 매력적이지만, 평범한 재능을 가진 사기꾼이며, 측근들에서만 인정받는다. 최근에는 괴테를 비난하고 다니는데, 괴테의 명성에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나에서 학생 시절 처음 티크를 보았을 때 브렌타노는 존경심에 눈물을 흘렸고, 슐레겔 두 형제가 티크를 가운데 두고 길을 걸을 때,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걷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의 가장 높은 이상은 훔덜린이다. -160~161쪽

게오르그 헤르베그는 『사라진 사람』이라는 글을 훔덜린에게 헌정한다. “독일은 진정한 젊음의 시인에게 크나큰 빛을 지었다. 독일 때문에 그가 무너져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 통탄할 현실에서, 우리의 수치심이 극에 달하기 전에,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 전투의 노래를 부르도록 부름 받았던 그가 이제 성스러운 광기의 밤으로 스스로를 구원했다..... ‘젊음이 믿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뵈르네는 말했고, 이 말은 훔덜린에게서도 찾을 수 있는 진리이다..... 고대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는 그 어떤 문헌학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훔덜린은 세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를 견딜 수 없어 했다. -264쪽

그토록 비범한 정신이지만 비운 속에 파묻혀 이제는 다가갈 수 없는 사람과 마주한 순간, 우리의 대화는 어쩔 수 없이 어색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특정 질문이나 이름이 그의 마음을 건드릴 때면,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모습은 잊을 수가 없다. 젊은 시절 친구였던 실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마치 옛 친구를 떠올리는 듯 푸른 눈이 반짝이며 ‘아, 나의 실러, 나의 위대한 실러!’라고 외쳤다. 하지만 화제가 괴테로 옮겨가자 그는 갑자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아, 그 괴테 씨!’라고만 짧게 말했다. -283쪽

훔덜린의 후기 시들은 정지 상태에 놓인 언어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의 고정된 판본이 아닌 여러 버전으로 존재한다..... 이 다양한 판본은 실수로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어떤 궁극적 형태나 의미에 다가가기 위한 미완의 시도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짐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감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무한 운동 속에서의 시적 일탈이다. ‘시행verso’이 어원적으로 ‘스스로 돌아오는 말si volge’에서 유래했다면, 다시 말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면, 후기의 훔덜린은 시적 언어의 ‘회귀적 성격’을 극한까지 몰아붙인다.” -325~326쪽

인간이 지상에서 거주하는 것은 비극도 희극도 아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진부한 삶일 뿐이다. 말하고 몸짓하지만 그 어떤 행위나 담론에도 키속시킬 수 없는, 익명적이고 비인칭적인 삶의 형식 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훔덜린의 삶은 우리 문화를 규정해온 범주적 대립들—능동/수동, 희극/비극, 공적/사적, 이성/광기 가능성/현실성, 의미/무의미, 통합/분리 등—을 무력화하는 하나의 전형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훔덜린의 삶이 모호한 경계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의 삶을 쉽게 마주할 수도, 그로부터 하나의 모범을 도출해내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훔덜린의 삶은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대립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도움이자 자원으로 전환된다. 실패는 마치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동시에 신의 부재가 그렇듯이 말이다. 훔덜린이 남긴 가르침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든, 그것이 우리가 성공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에게 부여된 운명은 실패하는 것이며, 모든 예술과 학문에서,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는 삶이라는 순수한 예술 안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실패야말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를 수 있는 최고의 성취다. -340~341쪽

훔덜린에게 거주하는 삶은 “인간은 이 지상에서 시적으로 거주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시적dichtensich인 삶’이다. 독일어 동사 ‘dichten(시를 짓다)’은 어원적으로 라틴어 ‘dichtare(받아쓰게 하다, 구술하다)’에서 유래하는데, 고전 작가들이 종종 필경사에게 자신의 작품을 구술하기 시작하며 점차 ‘시를 짓다’ ‘문학 작품을 창작하다’라는 의미로 자리 잡았다. 시적인 삶, 즉 시적으로 거주하는 삶이란 하나의 ‘구술된 삶’, 곧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지는 삶이다. 이는 하나의 습관, 하나의 주어짐에 따른 삶으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없고, 다만 거주할 수 있을 뿐이다.

거의 1년 동안 나는 매일 훔덜린과 함께 살았다. 최근 몇 달은 내가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고립된 상황에서 지냈다. 이제 그에게서 떠나려고 보니, 그의 광기는 사회 전체가 깨닫지 못한 채 빠져든 광기에 비한다면 완전히 무해한 것처럼 느껴진다. 네카 강변의 탑에서 시인이 살았던 그 ‘거주하는 삶’에서 내가 포착해보고자 했던 정치적 교훈을 더듬어본다면, 나는 아마 당분간은 그저 “더듬거리고 더듬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는 독자는 없다. 수신자를 잃은 언어만 있을 뿐이다. ‘시적으로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물음은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다.

팔락쉬. 팔락쉬.

-343~344쪽